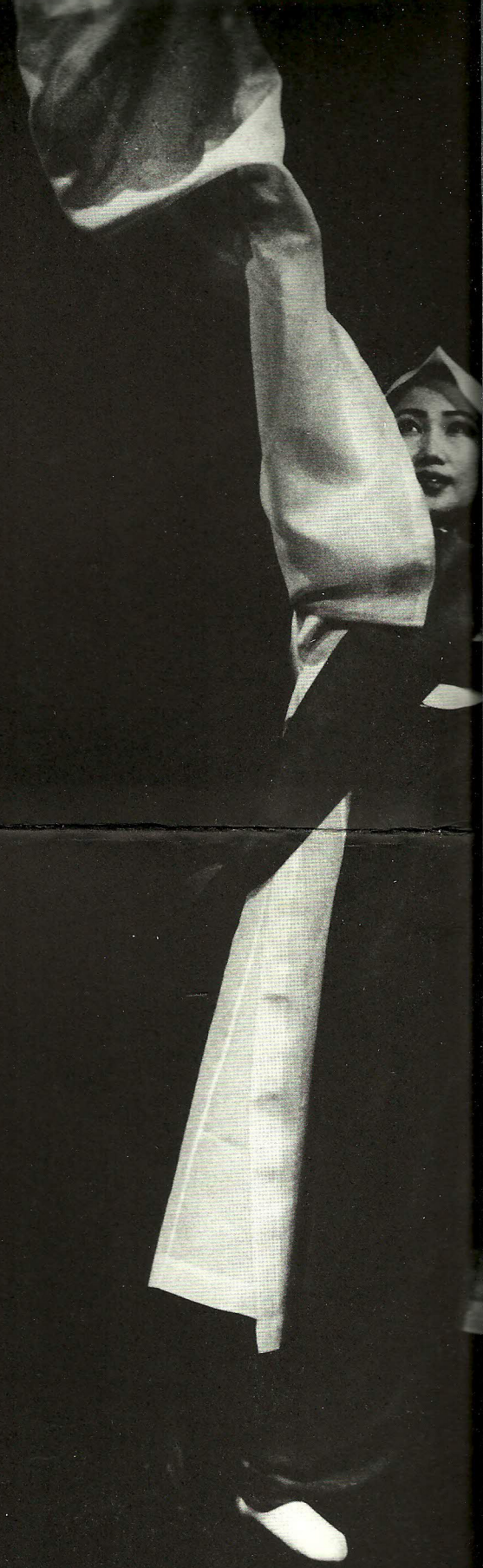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춤패 배김새

춤패 배김새

춤패 배김새



2004년 2월 27일(금) 하오 7시
민주공원 큰방

주최 : (사)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주관 : 춤패 배김새,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새로움을 얻기 위한 창조의 근원

천지를 뽕뽕 얼어붙게 했던 세찬 바람 사이로 간간이 묻어 오는 봄의 향기가 우리를 설레이게 하는 이른봄에 여러분을 배김새 옛 춤판에 모십니다.

우리 춤 문화유산의 代물림의 장으로 민족정서와 신명을 감지하고 느끼게 하여 새로움을 얻기 위한 창조의 근원을 찾고자 기획되었던 옛 춤판은 오늘로 4회 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배김새 창작활동에 원천이 될 것입니다.

2004년 갑신년에 마련되어지는 배김새 옛 춤판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한 한 소년에게 힘이 되고자 합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삶을 누려야 할 시간을 병마와 싸우며 고통받은 소년에게 공연에서 얻어지는 모든 수익금을 수술비로 지원하고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뜻깊은 무대입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 애를 써주신 민주공원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올리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 저희들의 정성에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4.2.27

예술감독 정미숙

태평무 *Tae pyung mu*

| 출연 하연화 |

국가의 안녕과 태평성대를 축원하기 위해 추어졌다고 하고, 주로 궁중의 뜰에서 뿔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기원설은 여러 갈래다. 오늘 추어지는 태평무는 한국 근대무용의 시조인 한성준선생이 1900년대쯤 경기도 무속음악인 진쇠가락을 비롯하여 낙궁, 티벌림, 도살풀이 등의 가락을 기초로 하여 만든 춤으로 한영숙-박재희로 이어진 춤이다. 춤동작에서는 위엄이 서려있어 절제된 정한미(情恨美)가 담겨 있으며, 특히 발디딤새는 겹걸음, 잔걸음, 무릎 들어건기, 따라붙이는 걸음, 뒷꿈치 찍기, 앞꿈치 꺾음새, 발 옆으로 밀어주기 등 발을 구르는 독특한 보법에서 외씨버선의 멋을 드러내는 춤의 독특함을 볼 수 있다. 한영숙류의 태평무는 복식의 외형적인 미와 춤의 독특한 기교적인 세련미가 무대화되어 예술성이 높은 전통춤으로 손꼽히고 있다.

자선기금마련 특별공연

춤패 배김새

배김새

옛춤





살풀이춤 *Sal puri chum*

| 중요 무형문화재 97호 | 출연 정미숙 |

한을 바탕으로 하면서 기쁨이 있는 인간의 이중구조적 심리를 잘 표현한 살풀이 춤은 살풀이라는 독특한 무악 장단에 맞추어 추는 춤이다.

다지듯 내딛는 발디딤은 땅의 기운을 단전을 거쳐 손끝의 수건에까지 전하며 그 기운은 호화로운 수건 놀림으로 이어진다.

숨막힐 듯한 호흡의 무게감과 깊은 내면에서 뿜아내는 듯 한 팔의 선, 은근한 고개짓 사이로 드러나는 목 선, 선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며 만들어 내는 무대는 내면의 감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산조 *San jo*

| 출연 신은주 |

산조 가락은 그 계보의 지역에 따라 그 유형이 다양하다.

황무봉의 산조춤은 박성옥철가야금에 의한 것으로 오늘의 산조춤은 황무봉-김매자-최은희로 이어받은 춤이다. 장단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순으로 짜여져 있는 음률에 맞춰 짜임새 있는 공간구성과 부드러운 선의 흐름이 여인의 옷 매무새에 흐르며 버선발의 고운 내디딤과 꺼질듯 말듯한 춤가락이 춤의 격조와 태를 더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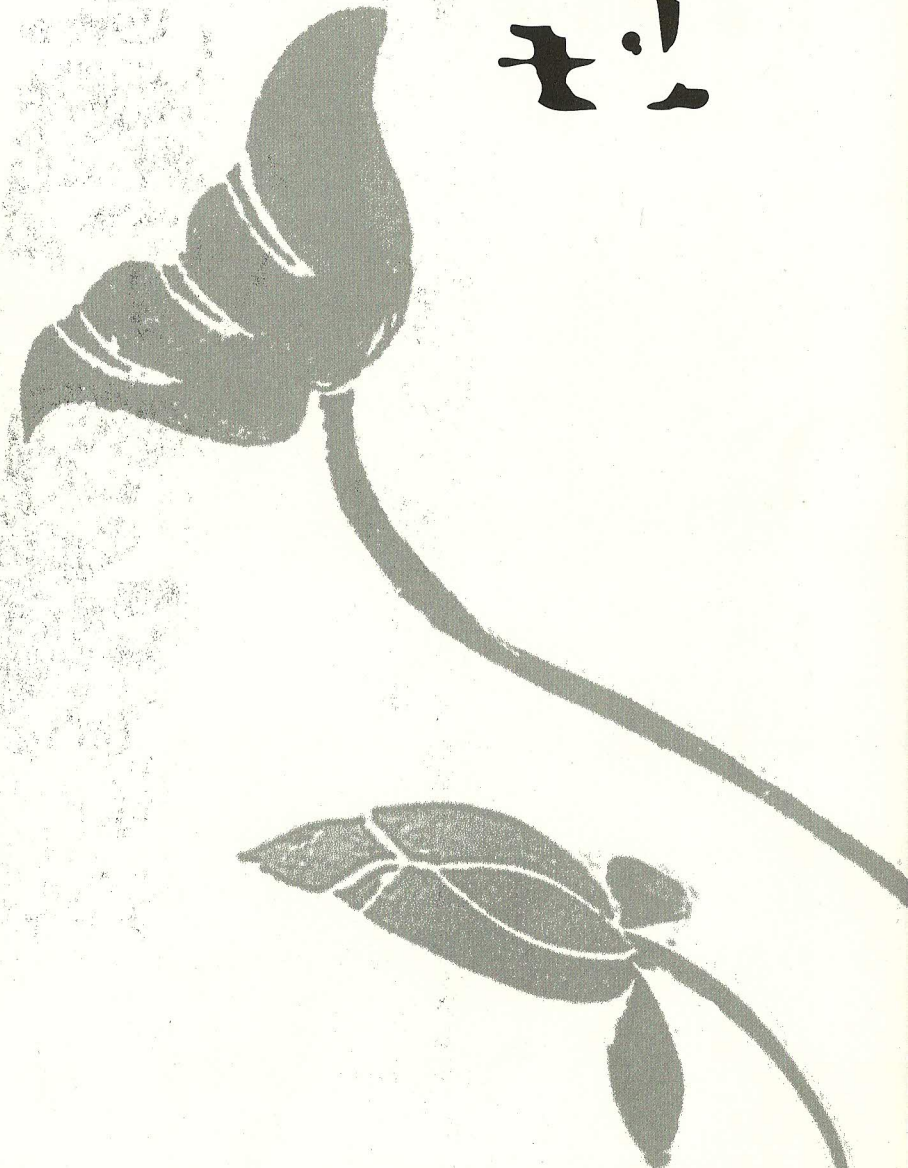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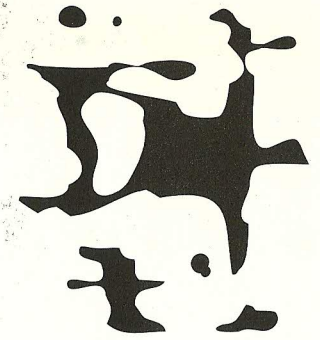
승무 *Sung mu*

| 중요 무형문화재 27호 | 출연 최은희 |

예술 본연의 내면적인 상을 그린 무용의 정수로서 멋의 절정을 자아내게 하는 승무는 긴 장삼을 허공에 뿌려 인간의 원대한 희망에 대한 욕망을 갈구하고, 힘차고 웅장하게 뿌려지는 장삼의 움직임과 장삼실 안으로 표출되는 허리에서 다리로 흐르는 듯한 모습의 무대 부섭게 내딛어 경건함을 밟아가는 발디딤은 춤의 극치를 이루며 이어지는 화려한 법고의 울림은 이 춤을 절정에 다다르게 한다.

배김허튼춤

| 출연 최은희 |



배김 허튼 춤은 경남지역의 고유한 춤사위인 “배김사위”를 바탕으로 한 허튼 춤 모형을 제시한 작품이다. 몇가지의 춤 놀이인 밀양백중놀이, 고성오광대, 동래학춤 등에서 보여지는 독특한 춤사위인 배김사위는 ‘땅에 힘차게 내려 박는다는 명칭’으로 강하고 춤 폭이 크고 멋스러우며, 흥을 맺고 풀어 가는 독특한 표현동작이라고 할 수 있다. 배김 허튼 춤의 형식은 기본적인 허튼춤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적 토속성이 강한 여러 가지의 배김사위를 가미한 춤이다. 이것은 단순히 정형화되고 형상화되어진 일회성 몸짓이 아닌 하나의 춤 모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배김새의 인식인 것임으로 그 의미를 조명해 보고 미래의 길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또 다른 과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다.

멋과 흥이 함께 어울려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 내어,
서로 흐트러지고, 만나고, 널붙어져 땅으로 내려박는 뻔힘에 일어섬...
힘찬 날개 짓의 우쭐거림

行

길의 열림과 더불어 소리의 이끌림에 따라
소매 한 자락, 한 자락이 하늘에 휘날린다.

交

들녘의 금빛 물결이 일렁이듯
춤사위 하나, 하나가 너울거리고... 서로 몸짓과 소리에 흥을 돋운다.

습

춤사위의 도약과 박음의 힘이
신명을 불러일으킨다.

스텝

- 총감독 최은희
- 예술감독 정미숙
- 대표 하연화
- 상임안무 신은주
- 무대감독 황정옥
- 음악 이주현, 김경아
- 진행 이현정,
김민아, 이해정,
김연경, 박수정,
김차연, 박진주

춤패 배김새는 1985년 12월 한국전통춤을 토대로 지역적 특성을 살려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한국무용 전공자 모임으로 창단된 순수 민간예술 단체이다.

한국무용이라는 특수성과 지역적 특성을 살려 영남지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춤의 언어를 찾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토대로 새로운 예술양식을 추구하고자 1985년 창단한 춤패 배김새는 최은희 교수(경성대 무용과)를 중심으로 부산 지역의 춤 발전을 주도해 온 단체이다.

그 동안 정기공연, 소극장 공연, 서울 및 지방무용제, 순회공연 부산 여름무용축제, 야외공연, 독일과 일본 등지의 축제 공연 참가등 다양한 공연속에 일반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을 얻었으며 우수한 기량을 갖춘 무용수와 인재의 진가를 높이 평가 받기도 하였다.

앞으로 춤패 배김새가 그 동안 이루어낸 성과는 한국춤의 재창조 과정에서 각자의 춤 언어를 강조하였고 앞으로도 잘 다져진 토양아래 우리것 찾기와 우리 춤 찾는 작업의 정진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Dance Group Paegimsae was founded in December of 1985.

under the direction of Kyoungsoungh University, Paegimsae is the first private artist group in Pusan City, seeks to promote contemporary Korean dance which is based on locality dancers and has appeared at many of Korean dance festivals as well as international dance festivals,

including East-West Berlin Folklore Festival in Germany and Arirang Festival and Nakasaki City Festival in Japan. Paegimsae contributes to promote dance exchange with other cultures not only through performing in overseas but also through inviting prominent dance masters, such as Yakami Keigo of Japanese Ballet Troupe.

Paegimsae established the basis for contemporary Korean dance through such works of re-creation of Korea dances. Dance Group paegimsae will continue to search for own nation's identity and dance.